

■오직 여호와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제목 : 승리하는 영적전쟁

성경: 전도서 7장 12-20절

Tag:

12 지혜의 그늘 아래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다

13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14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 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15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 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16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17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18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네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19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에 있는 열 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20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다 (전7:12-20)

영적전쟁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영적전쟁에 대한 분명한 지혜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 특히 13절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는 눈’을 가지라고 조

언하고 있다.

### 13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이 있다.(물론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고 계시다는 뜻은 아니다. 사람이 저지른 죄로 말미암아 그로 인한 저주 가운데 방치되어 있는 일을 보라는 뜻이다. 해야 할 **숙제**가 있다는 뜻으로 보아야 한다.) 우리들이 그것을 굽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그것을 올바르게 펴야 할 숙제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는 눈’이 찾은 정답은 ‘오직 하나님만이 이 일을 곧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구하게 된다. 예수님께서 여기에 답을 주셨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마7:7)

사람들은 반듯하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본다. 굽은 것을 곧게 펴고 싶어한다. 그런데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다. 너무 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면 약간 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심지어 굽은 것이 곧은 것이고, 곧은 것이 굽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물론 13절 말씀의 의미는 분명히 잘못된 일인데, 심지어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라는 의미다. 즉, 굽은 것을 곧은 것으로 여겨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좋은 예이다. 너무 오래도록 북한에 사는 주민들은 억압을 당해오고 있다. 그것은 굽은 것이다. 하나님이 굽게 하셨다. 그러나 그러므로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승리하는 영적전쟁이 아니다.

북한도 엄밀하게 판단하면 1994년 부터 고난의 행군을 겪으면서 급격하게 몰락의 길을 걷고 있는 중이다. **몰락의 끝에서 불꽃놀이를 하는 중.** 1970년대만 해도 북한이 남한보다 형편은 좋았다. 그때는 북한이 조선시대보다 훨씬 나았으며, 자기들끼리는 지상의 낙원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할 지경이었다. 그러한 북한이 처참하게 된 것은 1994년 이후 27년 정도에 불과하다. 문제는 현재 남한과 비교했을 때 그 격차가 엄청나다. 중국의 시골과 비교 하거나 인도나 아프가니스탄과 비교한다면 그리 큰 격차는 아니다.

현재 중국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정전사태가 심각하다. 우한폐렴, 기나긴 홍수, 자연재해, 부동산재벌 헝다그룹의 위기 등 중국의 굴기가 휘청거리고 있다. 이제 중국이 군사적 도발을 시도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하는 학자들도 늘어나고 있고, 실제로 남중국해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다.

오늘 14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기록하고 있다.

14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 보이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과연 오늘을 살아가는 한국 기독교인들의 지혜는 무엇일까?

오래도록 지금까지 북한 때문에 남한이 심각한 체제갈등 속에 시끄럽지만, 긍정적으로 해석한다면, 그로 인해서 온 국민들이 앞으로 우리나라는 어떤 체제가 되어야 할 것인가를 체험을 통해서 학습하고 있는 셈이다. (체험 이념현장 대한민국)

남한은 특히 이번 정권들어 공산주의적 체제를 실험하고 있다. 이 실험을 코로나를 통해서 길게 경험하고 있으니 분명히 학습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사실, 공산주의 체제바이러스에 대해 코로나 자체가

백신이 되어 체제전복이 더 어렵게 된 측면도 있다. (애는 셋지만, 하나도 제대로 된 것은 없다.)

만약 우리가 이 이념홍역을 잘 치루기만 한다면 세계 어느나라 보다 더 건강한 이념에 대한 가치관을 배우게 될 것이다.

6.25 사변 이후에 지속되고 있는 체제전쟁을 통해서 우리는 양쪽의 장점과 단점을 골고루 경험하게 되었고, 경험에 기반된 가치관을 체득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현재 한편으로는 자유주의와 공산주의로 대변되는 이념전쟁을 치루고 있지만, 그 속에서도 여전히 전통적으로는 선과 악이라는 윤리적 전쟁을 치루고 있다. 또한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마귀, 또는 하나님과 인간의 보이지 않는 전쟁을 치루고 있다.

어떤 사람은 권력의 유무로 가치를 판단하고,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이득으로 가치를 판단하고, 어떤 사람은 개인적 자유로 가치를 판단하고, 어떤 사람은 사회적 발달이나 기술적 진보로 가치를 판단하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나라의 가치관으로 현재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대한민국은 현재 그 어느 나라보다, 그 어느때보다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 중이다. 오늘 말씀이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한국 기독교인들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

**그 전에, 우선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 (본문을 해석하기 전에; 솔로몬에게는-스스로도 기록했지만- 지혜에 관한 약간의 광기가 엿보인다.)

1. 뜨뜻 미지근 하지 마라.

- 분명한 가치관으로 무장하라. 그러나 율법주의는 가치관이 아니니 경계해야 한다.

-무엇이 율법주의인가 판단이 서지 않을 경우, 분명히 올바른 일이고, 타당한 일이고, 사람에게 유익한 일인데 법이나, 규칙이나, 관습이나, 이념이 그 일을 막고 있으면 그것은 율법주의다.

선한 일을 막는 법이 곧 율법주의다.

2. 개인의 생각보다 공동체의 가치관을 더 소중히 여기라.

-공동체는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고, 개인은 공동체의 가치관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질서 가운데 하나가 되도록.

3. 진리와 거짓에 대해 경계하라.

-진리의 파숫군이 되어라.

-항상 여전히 세상은 마귀의 거짓말에 속는다.

-일어선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본문 말씀이 주는 교훈을 살펴보자.

12 지혜의 그늘 아래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지혜와 지식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라. 영적 더듬이를 길게 늘어뜨려 진위에 대한 분별력을 키워라.

-지혜와 돈을 비교 해서, 둘 다 마치 그늘 아래에 있는 것 같은 유익을 가지고 있지만, (둘 다 유익하지만.)

-지혜가 더 나은 이유는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지혜에 있기 때문이다.

14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 보아라 이 두 가

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 그러므로 일희 일비 하지 말라. 내일 일은 아무도 모른다.
-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는 중에 곤고한 날을 대비하고,
- 곤고한 날에는 뒤돌아보며 깊이 반성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 아무도 장래의 일을 헤아리는 능력은 없다는 것을 명심하라.
- 오직 하나님은, 선을 행하고 경건한 자와 함께 하신다. 이것만 진정한 보험이 된다.
- 보험은 차선이다. 없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

16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 지나치게(곱하여) 의인이 되지도 말라; -자기의 율법주의로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것- 자기가 스스로 패망하게 된다.
- 인간은 모두 나약한 죄인임을 잊지 말라.
- 주를 위해 죽겠다는 베드로에게 하신 예수님의 치명적 화살을 기억하라. 네가 오늘 닭 울기 전에 나를 세 번 부인할 것이다. 함부로 죽음을 각오하지 말라.
- 지나치게(교만하여, 우월감으로-단어가 다름) 지혜자가 되지 말라; 망치게 된다.
- 16절 말씀은 일을 망치게 됨에 대한 경계의 말씀. 과유불급. (지나침은 부족함과 똑같다. -일을 망친다.)

17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 17절 말씀은 생명을 잃게 되는 위험한 일을 하지 말라는 뜻.
- 15절에는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15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 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그러나 이 말씀은 특이하게 그럴 수도 있지만, 보편적이지 않다는 뜻이다. 특별히 굽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있으신 것이다.

-요즘 황교안후보가 홀로 부정선거의 기치를 들었다.

-어찌 보면 혼자 지나치게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 자들이 많다.

-하지만, 그는 용감한 자가 되는 길을 선택했다.

-자신이 저지른 실수를 자신이 책임지고 척결하겠다는 뜻이다.

-특히, 부정선거에 대한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만약 지금 이것을 문제 삼지 않으면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도 똑같은 부정이 저질러질 것이니만큼, 부정선거 만큼은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신념이 강하다.

-다른 후보들은 표 떨어질까봐 제시된 증거물도 보지 않으려 한다.

-정의를 세우겠다는 것과, 악인을 죽이겠다는 것(불법선거 한 자들을 죽이겠다는 것-지나치게 악인이 되려는 것.)은 다르다.

-정부가 이재명 이슈에 몰입하는 이유는 부정선거 이슈가 떠오르지 않게 하기 위함이 아닐까.

18절 말씀은 결론에 해당되는 말씀이다.

18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네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세상사는 정해진 바가 없고, 아무도 미래를 장담하지 못한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든지 하나님께는 얼마든지 솔루션이 있으신 분이니, 결국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만 남겨진다.

그러나 결코 변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지나치게 의인이 되려고도 말고, 지나치게 악인이 되려고도 말아라.  
오직 스스로 겸손히 경건한 삶을 선택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어떤 위기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위기에서 벗어나게 될  
것을 믿고 도전해야 할 것이다. 아멘.



<찬양예배>

제목 : 요한복음 성경공부 2

성경: 요한복음 11장

Tag:

2장;가나안 혼인잔치

-물로 포도주를 만듦;첫번째 기적;어머니 마리아의 부탁으로 예수님께서 어머니의 청을 들어줌. 한 순간에 핵심적인 인물로 부각됨.(물론 지역사회에서)

-제자들의 믿음이 커지는 효과

성전청소;처음부터 기득권세력과 대립되는 행동을 하신 것으로 묘사됨. (요한은 예수님을 기득권세력과 첨예하게 대립하신다는 것을 다른 복음서보다 더 심각하게 묘사함)

-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삼일만에 일으키리라;성전중심주의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짐. 대적들에게 신성모독으로 해석됨. 제자들은 후에 영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임.

3장;니고데모 이야기;거듭남에 대한 진리;오직 성령으로 거듭남.

-두번째 요한의 증언

4장;사마리아에서의 전도; 8장에서도 그렇고 소외받고 있는 여인에 대한 예수님의 배려. 그들에게도 복음이 절실함.

5장;베데스다 연못에서의 치유; 안식일 논쟁

-예수님이 아버지가 일하니 나도 일한다 하심으로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으로 여기심.

-이로 인하여 신성모독으로까지 변짐.

- 율법주의가 선행을 이김.
- 율법주의는 모든 선함을 가로막게 됨.
- 선함에 걸림이 되면 율법주의임.

6장; 오병이어의 기적;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많은 사람이 예수를 떠남.

-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7장; 초막절에 예루살렘에서 가르치심

- 목 마른 자들은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

- 예수가 그리스도인지에 대한 다툼.

-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율법주의의 적나라한 모습)

-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한다.

8장; 간음하다 잡힌 여인

- 나는 세상의 빛이다.

-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버지이심을 증언하심.

-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고 하고,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업신여김.

- 예수님은 대놓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심.

- 실제적으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시도함; 율법주의적으로 종교적으로.

9장 ; 날때부터 맹인인 사람을 고치심

- 맹인을 고치신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맨붕에 빠짐.

10장; 양의 문, 선한목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함.

-예수님이 이렇게 격한 논쟁을 하시는 이유는 목자의 음성을 듣고 믿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함임. 10장 마지막은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고 증언함. (핍박 중에도 전하면 목자의 음성을 듣는 양이 있음)

11장; 베다니 나사로의 부활

-부활 체험현장.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기획하여 만들어진 부활 드라마.

-부활사건으로 크게 전도가 활성화 되었고, 당국자들은 위기에 빠지게 됨.

-당국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심하는 사건이 되기도 함.

